



## 생애에 변치 않는 것을 찾으라

### Find a constant in your career

데이브 홀 (Dave Hohle)

크리스천 사이언스 센티넬 (Christian Science Sentinel)

2011년 10월 24일

오늘 날 사람은 일생 동안 평균적으로 여러 개의 직업 경력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모든 것이 끊임 없이 변화할 뿐 아니라, 그 변화의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회사들도 진화한다; 새로운 직종들이 나타나고 또 기존의 직종들도 그 정의가 바뀐다; 일자리들은 채워졌다가 곧 없어지기도 한다; 어떤 산업은 그 전체가 거의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는 반면,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대학들은 요구되는 새로운 기술들을 지원하기 위해 끊임 없이 자기 변혁을 한다.

게다가 현재의 세계적 실직 통계를 보자면, 많은 나라들이 높은 실업율을 유지하고 있고, 회복의 속도에 대한 예측도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다. 미국에서 최근 발표된 통계는 그것이 세계적인 경제에 의미하는 바 때문에 통계를 주시하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통계를 두고 자신의 취업의 가능성을 예측하자면 그 전망은 암담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통계를 넘어 그 바깥으로 눈을 돌리면, 좋은 뉴스들이 있다. 자격을 갖춘 수 많은 지원자들 가운데 제로섬(zero-sum) 상황 하에 한 자리를 쟁탈하려고 허둥거리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이질적인 것이다. 창세기 1 장에서 명백하게 단언하는 바와 같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기본적인 영적 사실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각자는 우리 자신만의 흔들릴 수 없고, 억제할 수 없는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는 영적 현실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에서 나타난다.

.....

**하나님의 현재진행형인 표현으로서의 우리는  
이지, 창의성, 진실성 등을 “준다,” 즉 표현한다.**

.....

이것이 현실의 세상에서 어떤 실용성이 있는가? 우리가 고유한 핵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음은 우리에게 용기와 비전을 불어넣어 주고, 곤경에 처했을 때도 코스를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준다. 50대 중반에 윈스턴 처칠은 영국 행정부에서 퇴출 당했고 그 후

For this translation in English and other translations in Korean,  
please see <http://translations.christianscience.com/translations/list/lang/Korean>.

Translation © 2011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This translation has been performed by Mother Church members in the Field and made available by agreement with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You may reproduce up to 100 print copies of this Article. You may not sell or reprint this Article in another publication without permission of CSPS. You may not post or embed this Article on other websites; instead please link to the Article on the CSPS website.

거의 10년 동안 정치적으로 표류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제 2차 대전의 열기 속에 그의 천부적이고 귀중한 가치가 유용하고 강력하게 표현됨을 막지는 못했다. 그는 언젠가, “우리는 받은 것으로 생계를 꾸리지만, 주는 것으로 삶을 만들어 간다.”고 썼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주는가? **하나님(신성의 마음, 혼, 원리)**의 현재진행형인 표현으로서 우리는 이지, 창의성, 진실성과 같은 것들을 “준다,” 즉 표현한다. 그리고 우리의 일에 대한 동기가 **마음**과 방향을 맞추고 있을 때, 우리는 문제들을 용기 있고 현명하게 풀며, 심지어는 문제 전체를 없애버리기까지 한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곳에 제 시간에 나타나서 종일 일을 한다. 우리는 우리의 업무를 마치 그것이 자신의 것인 양 다룬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 그렇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지 봉급을 받을 목적으로 필요한 기간 이상 업무를 늘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표현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은 보상을 주는 유용한 일자리뿐 아니라, 그것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실직에 따라오는 두려움은 우리가 마땅한 일을 찾고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것이라든지 누군가가 우리의 일자리를 취한다거나 우리 자리를 채울 것이라는 등의 두려움은, 우리의 고유한 개성은 그것의 정당한 표현과 공급을 포함하고 있고,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서 그것을 빼앗아 가거나 분리시킨다거나 또는 부적당한 일자리에 우리를 얽매어 둔다든지 등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사라지게 된다.

.....

**하나님의 특성은 늘 한결같고, 유용하고, 적응적이다.**

.....

인간 생활의 거친 수면 아래에, **하나님**의 특성은 – 즉 정직함, 끈질김, 용기, 통찰력, 집중, 자제와 같은 특성들은- 늘 한결같고, 유용하고, 적응적이다. 이것들은 사람의 생애 경로를 통해서 언제나 표현될 수 있는 반영적인 특성들이다. 이것들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게 될 그 무슨 직업이라도 그것을 고양시킬, 진정한 의미의 “양도할 수 있는 기술”이다. 성경은 “사람의 선물은 그에게 기회를 마련해 주며, 또 위대한 사람들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잠언 18장 16절)고 말씀한다.

내가 대학을 갓 나왔을 때, 시카고의 레이크쇼어 드라이브를 따라 북쪽으로 달리며, 왼쪽으로는 도시를 보고 오른쪽으로는 아름다운 미시간호를 보았다. 내 인생의 목표를 생각하는 동안, 나는 나의 직업을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도록 맡기기로 결심하였다. 나는 나의 직업생애에 대해 **하나님**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나의 직업을 더욱 더 효율적이고, 더 유용하며, 그리고 여러면으로 분명히 더 즐거운 것으로 만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래픽 아트 산업에서 일자리를 찾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당시에는 나에게 이치에 맞는 것으로 느껴져, 나는 그 과정을 절도 있게 접근하였다. 내 이력서는 충실했고, 실마리가 있는 모든 곳을 쫓아가 보았다. 나는 또한 나의 노력을 기도로 집중하기 위해 크리스천 사이언스 프랙티셔너의 도움을 부탁하였다. 나는 나에게 가치가 있다는 것과, 나의 고유한 개인적 재능은 다른 누구와도 경쟁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 때에도 그럭저럭 깨닫고 있었다.

그 과정 중에서 나는 많은 고용주들로부터 거절을 당했고, 그 중에는 내가 정말로 흥미를 느꼈던 몇 군데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나의 탐색은 조심스럽고도 활발하게 그리고 기대에 가득 찬 채로 계속되었다. 결국 나는 내가 희망했던 것보다 훨씬 매력도 덜 하고

급여도 적은 일자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선택으로 보였고, 그래서 나는 직장을 시작하였다. 그 직장에서의 첫 번째 주일에, 나의 이력서를 본 어느 광고 회사가 나에게 면접을 하러 오라고 요청하였다. 나는 그들에게 나는 이미 직장을 택했고 더 이상 고용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토요일에 자기들 사장을 한 번 만나러 오라고 청하여서, 나는 가보았다. 그는 매우 훌륭한 그래픽 아트 관련 설비를 돌아다니며 구경시켜 주었다. 그곳에는 내가 원했던 모든 것들 – 즉 멋진 시내 중심가의 사무실, 흥미 있는 고객들, 그리고 많은 배울 거리 등 –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런 말을 했다, “당신 마음을 바꾸려면 내가 얼마나 급여를 주어야 할지 말만 하세요.”

.....

**원리로 하여금 원리의 보조에 맞춰 나를 전진시키도록 하자**

.....

한 주일 전이었더라면 나는 그와 악수하며 주저함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것은 더 좋은 상황으로 보였다. 나의 당시 고용주는 아직 나에게 크게 투자하지도 않았고, 나는 아직 계약서에 사인도 하지 않았었다. 그만 둔다 해도 불편할 것도 없었다. 나는 그곳에서 시작한지 겨우 닷새밖에 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기도 중에 앞뒤 상황을 생각하는 동안, 나를 인도했던 것은 인간적 고려가 아니었음을 느꼈다. 나는 애초에 **하나님**께서 나의 생애를 인도하시도록 하겠다고 마음 먹었었다. 그리고 오직 기도만을 통하여 내 직장을 택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실수였다는 말인가? 내가 그것을 수정할 필요가 있었는가? 나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나를 인도하시도록 정말로 신뢰했던가? 나는 **하나님**의 나를 위한 지침에 대해 완전한 신뢰를 가졌었다는 것을 깨닫는데 불과 몇 초도 걸리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 지정해 놓으신 일에 머무는 것이 낫겠다고, 그리고 **원리**로 하여금 **원리** 자신의 보조에 맞춰 나를 전진시키는 대로 놓아 두기로 하였다. 나는 그 사람에게 감사 표하고, 공손하게 그 새로운 제안을 사양하였다, 그리고 다시 뒤돌아 보지 않았다.

나는 5년간 그 자리에서 일했고, 꾸준히 진전하여, 유용한 기술들과 효율적인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관리직급으로 승진하여갔다. 내 첫 해에 회사는 최신 건물로 이사를 했었고, 나의 그 회사에서의 5년 동안에 봉급은 세배로 뛰었다.

.....

**우리가 길을 비키고 신성의 마음으로 하여금 역사하도록 한다면, 우리 생애의 모든  
세부 사항들이 아름답게 펼쳐지고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

결국 나는 그곳에서 내가 갈 수 있을 만큼 갔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무언가 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금, 믿음을 가지고, 나는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끄시도록 하였다. 어떤 직장에 관한 설명이 어찌 하여 내 손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것을 읽으면서 그것이 나의 일자리라는 것을, 말하자면, 바로 “알아 차렸다.” 그것은 나를 위해 쓰여진 것 같았다. 그 자리는 너무 힘들어 보였고 또 이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시도해 보기로 하였다. 수 차례의 면접을 거친 후 (그리고 많은 기도를 통한 경청 후에!) 나는 그 길로 가게 되었다.

그래서 생애를 계획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하나의 목표와 – 즉 표현할, 그리고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될, 영적인 특성들에 대한 일반적 아이디어와 – 지침이 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아마도 더 유용할 것이다. 그리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그때 그때의 필요에 들어맞게 되고, 그 반면, 지침은 결코 변화가 없어서, 늘 **하나님**, 즉 우리의 “진북(眞北)”을 향하고 있다. 메리 베이커 에디는 *과학과 건강 부 성서의 열쇠*에서 자신의 여정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즉 “크리스천 사이언스의 발견자는 그녀가 항상 높은 목표를 영두에 둘 때, 그것에 도달하려 견뎌낼 발걸음 수를 셀 때보다 그 길이 덜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다. 목표가 바람직한 것일 때, 기대감이 우리의 전진을 가속시킨다.(426 쪽)”

우리가 길을 비키고 신성의 **마음**으로 하여금 역사하도록 한다면, 우리는 우리 생애의 모든 세부 사항들이 아름답게 펼쳐지고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시점은 완벽하고 멋지며, 수입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경험은 보람이 있고 늘 우리를 다음에 올 것에 준비시켜준다.

*데이브 홀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사는 크리스천 사이언스 프랙티셔너이며 선생이다.*